

# 도심 점령 길 고양이 골칫덩이

천적 없고 번식력 왕성 '무법자'로  
처리문제 갈등 이웃간 폭력다툼도

소음에 공포감 유발 "포획해야"  
동물보호 당연한 것 "공존해야"  
의견 분분... 지자체도 대책 고심

##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실 환기구·창문 막아도  
고양이들 계속 숨어들어  
보온재 뜯고 배설물 냄새 진동  
땃 설치해 4마리 잡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광주·전남 길 고양이 현황 보니 (마리)

2010년	2011년	2012년
1275	1305	1556



도심 주택가를 휩쓸고 다니는 야생 고양이들이  
시민들의 골칫거리를 넘어 이웃 갈등까지 부추기는  
'원흉'이 되고 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를 해  
집어 놓거나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가 하면, 발정  
기 울음 소리로 공포감을 유발, 시민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고양이 문제를 둘러싼 주민간 다툼도 잇  
따르고 있어서다.

▷포획 땃에 그물까지=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  
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지하실에 고양이  
포획 땃을 설치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빌린 것으  
로, 심야 시간에 지하실에 숨어들어 온통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남겨놓는가 하면 수도관  
보온재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등 피해를 적지 않  
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이 곳에서 10마리의 고양  
이 사체가 발견됐고 최근 땃을 이용, 고양이 4마리  
를 잡았다.

하지만 왕성한 번식력과 천적이 없는 탓에 아파  
트를 돌아다니는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뚜  
렷한 대책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고양  
이는 임신기간이 2개월로 짧고 한 번에 2~4마리  
씩 1년에 최대 4번까지 출산이 가능하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유기동물 중 야생 고양이는 지난 2010년 1275마

리, 2011년 1305마리, 2012년 1556마리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고양이는 이 같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주택가  
쓰레기를 뒤져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도로  
무단진입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발정기  
울음소리에 의한 수면방해, 갑작스러운 출몰로 인  
한 공포감 유발, 전염병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동물 보호 VS 생활 불편=야생 고양이를 돌  
리싼 주민 의견도 각기 달라 또 다른 분쟁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Y아파트 자치회장 주모(여·59)씨는 "야생 고양이  
에게 밥을 준다"며 주민 김모(여·47)씨와 말다툼  
하다 욕설과 먹살잡이로 이어져 경찰에 입건됐다.

관리사무소측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김씨  
가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밥을 쥐 개체수  
가 급증하자 민원이 제기, 아파트 담장 밖에서 키  
우는 것으로 합의했는데도 주민들 불만이 이어졌  
고 결국 폭력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 18일 광산구 철단동에서는 들고양이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한 주모(44)씨와 자신의 집  
앞에서 그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최모(34)씨가 말  
다툼 끝에 서로 폭력을 휘둘러 나란히 입건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양이들이 찢어  
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일이 보통 고  
생스러운 것이 아니다"면서 "발정기 울음소리 땃  
에 잠을 설치다며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민원도 적  
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바 있지만 한마리당 10만원에 이  
르는 비용 부담이 있는데다, 워낙 개체수가 많아 한  
해 광주시 예산(300마리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  
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나주시, 미래산단 관련 소송 패소...74억 물어줄 판

##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나주시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  
74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  
사 조성필)는 27일 특수목적법인  
(SPC) 미래산단개발(주)이 나주시  
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나주시는 원고에게 74억4600만원  
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주시와

미래산단개발측의 '미래산단 조성사  
업 합의이행각서' 체결 행위는 나주  
시의 주인으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  
했다"고 밝혔다.

미래산단개발은 나주시 왕곡면 덕  
산리 등 일대에 산단 조성을 위해 지  
난 2007년 10월 전남도·나주시와 함  
께 미래산단 조성사업 민간투자 이  
행협정을 체결했다.

법인 소속 회사들은 이듬해 8월 나  
주시에 전남도의 미래산단 지정·고  
시를 위해 먼저 투자한 용역비 89억

7600만원 중 22억4400만원 지원을  
요청했고 시는 당시 보조금으로 15  
억6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010년 3월 협정  
을 해지기로 했고, 시는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74억1660만원과 별도의 타당  
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이후 약  
정한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  
로 이어졌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2만원 강탈 못 믿겠다" 혼성강도단 불신의 종말

## 편의점 돌아가 확인하려다 경찰에 4명 검거

소년원 동기인 남녀 4명은 심야  
에 편의점에서 2만원을 빼앗아 달  
아났다.

3명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일  
행 중 연장자인 사람이 흥기로 점  
원을 위협해 2만원을 빼앗은 것이  
다.

하지만 범행 직후 망을 뺀 이  
들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을 하  
면서 혼성 강도단(?) 사이에 불신

이 생겼다. 결국 이들 중 두번째로  
나인 사람이 범행 1시간 뒤,  
편의점 점원에게 정말 2만원만  
빼앗겼는 지를 확인하려다 경찰  
에 붙잡히면서 전원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27일 편의점  
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형모(2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이모(20)씨와 여자친구 정모  
(18)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새벽 5시30  
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G편  
의점에서 이모(53)씨를 흥기로  
위협, 금고에 있던 현금 2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다. 이씨 등  
3명은 CC(폐쇄회로)-TV를 피해  
외부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년원 동기로, 이날 유  
형비를 마련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간첩누명 사형 피해자 노역 중단 허재호 전 회장 "미납 벌금 납부할 것"

## 역대 최고 51억 위자료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  
의 이슬로 사라진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간첩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이른바 '진도 간첩  
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남과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였다. 그는 1981년 사형이 확정  
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됐다.

김씨는 부인 한모(71)씨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유족  
의 손해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천여만  
원을 제외한 21억4천여만원을 실제 지급  
토록 했다. 시국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김씨  
외에도 부인에게 7억5천만원, 모친에게  
4억5천만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원 등  
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공판송부부(부장 강경  
필)는 27일 허재호(72)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형 노역을 중단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대검의 벌금형 노역  
중단 결정에 따라 곧바로 허 전 회장  
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으며  
허 전 회장은 26일 밤 9시50분께 광  
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

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  
다.

한편 허 전회장은 "당시 지역경  
제 파탄을 막고 회사와 협력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투입하는 등 적  
극 노력했으나 일부 세금문제까지  
해결을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심려  
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  
하고 벌금 미납액 납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새벽 격렬한 몸싸움 끝 도둑 잡은 '용감한 집주인'



○새벽에 가  
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된  
30대 남성이 집주인과 격렬한 몸싸  
움 끝에 붙잡혀 쇠고랑.

○2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소모(38)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30  
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사는 황  
모(32)씨의 집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다가 귀가한 황씨에게 들켜자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지난 2012년 3월 출소한 소씨  
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48회에  
걸쳐 광주지역 주택·상가에 몰래 들  
어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집주인 황씨는  
소씨를 직접 경찰에 인계.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공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 놓은 땃에 걸린 고양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 53P - 전체 올수리(방2, 거실)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